

경찰대학 제21기 졸업 및 임용식 치사

친애하는 경찰대학 21기 졸업생 여러분,

학부모와 내외 귀빈 여러분,

먼저 어려운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대한민국 경찰 간부로 첫발을 내딛는 여러분의 졸업과 임용을 축하합니다. 패기 넘치고 늠름한 모습이 참으로 마음 든든하고 자랑스럽습니다. 특히 남학생과 똑같이 고된 훈련과정을 이겨 낸 11명의 여학생들에게 각별한 격려를 보냅니다.

이처럼 훌륭한 치안역군을 키워 낸 강영규 학장과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귀한 아들딸들을 나라의 일꾼으로 맡겨 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졸업생과 전국의 경찰관 여러분,

우리 경찰의 역량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우수합니다. 또한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체감치안의 핵심인 절도범죄가 17% 넘게 감소했습니다. 폭력시위도

32%나 줄어들어 길거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안전띠 매기와 정지선 지키기 운동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최근에는 3년 전에 일어난 살인사건의 범인을 DNA 분석을 통해서 검거했습니다. 우리 경찰의 과학수사 능력과 범인 검거에 대한 끈질긴 집념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 사례라 하겠습니다.

저는 이 같은 노력이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손꼽히는 안전한 나라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며, 15만 경찰관 모두에게 마음으로부터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경찰관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치안환경은 날로 복잡해지고 있고, 치안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혁신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역동적인 변화가 내부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변화와 혁신, 그 자체가 경찰의 직무가 되어야 합니다. 허준영 청장 취임 이후 치안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경찰의 역량을 고도화 하기 위해서 열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서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민생과 경제질서 침해 범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학교폭력 근절노력이 큰 성과를 거두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질서 있고 안정된 사회야말로 선진사회로 가는 필수요건입니다. 더욱 분발해서 국민에게 더 큰 신뢰를 받는 경찰이 되어 주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경찰관 여러분,

저는 어려운 여건에서 힘들게 근무하고 있는 우리 경찰을 보면 늘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직무특성상 주 40시간 근무제 혜택도 누리기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뒷받침 없이 언제까지 사명감만 요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

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숭고한 책무에 걸맞은 권한과 복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저는 우리 경찰이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수사권 문제는 지금 활발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매듭을 지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민주사회에서 권력기관은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이 되어야 하고, 그러자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합니다. 경찰이 책임감 있게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스스로도 우수한 수사능력과 고품질의 수사 서비스를 통해서 국민에게 평가받겠다는 자세로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주민생활 중심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했습니다. 국민주권과 주민자치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전체의 치안역량과 국민편익을 크게 높이는 기회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경찰은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자치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상호 경쟁을 통해 민생보호에 더욱 충실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경찰에 대한 애정과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성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힘들고 고되지만 명예로운 경찰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온 국민이 여러분의 장도를 기대와 믿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국민과 고락을 함께 하는 진정한 공복이 되고, 선진한국을 앞당기는 주역이 되어 줄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졸업을 축하하며, 여러분의 앞날에 영광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